



4<sup>th</sup> Week, December 2024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21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등급, 평가, 빈집, 건설, 성과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비중, 인구, 일자리
지역·사회	도로, 범죄, 재심, 등급, 불법

※ 분석 기간 : 12월 19일~12월 25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위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과수사업 1등급 달성</li> <li>- 환경친화 골프장 인증 등급 부재</li> <li>-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급 재개</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이용자 만족도 평가 상승</li> <li>- 도내 카지노 투명성 평가 개선</li> <li>- 상수도 누수 문제 평가와 개선</li> </ul>
	빈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활용 주거 복지 확대</li> <li>-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li> <li>- 농촌 빈집 재활용 사업</li> </ul>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 의료원 요양병원 건설 계획</li> <li>- 스마트팜 건설로 농업 혁신</li> <li>- 도로 교통 인프라 건설 강화</li> </ul>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협정 과수사업 성과</li> <li>- 제주 치매안심약국 성과</li> <li>- 탐나는전 지역화폐 성과</li> </ul>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 관광객 증가</li> <li>- 관광객 만족도 향상 캠페인</li> <li>- 성수기 관광 요금 상승</li> </ul>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티브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li> <li>-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li> <li>- 제주 관광경기 회복 전략</li> </ul>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령사회 진입 비중 증가</li> <li>- 관광업 종사자 비중</li> <li>- 청년층 인구 비중 감소</li> </ul>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li> <li>-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li> <li>- 지역 간 인구 불균형</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업 일자리 감소</li> <li>- 청년층 일자리 감소</li> <li>- 사회적경제 일자리 성과</li> </ul>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li> <li>- 겨울철 도로 설해 대비</li> <li>- 1100도로 CCTV 도입 필요성 제기</li> </ul>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랜딩카지노 횡령 사건 수사 진행</li> <li>- 음주운전 단속 강화</li> <li>-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li> </ul>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 관련 재심 첫 무죄 선고</li> <li>- 광주지법 4·3 희생자 사건 재심 결정</li> <li>- 4·3 특별재심 추진</li> </ul>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분야 1등급 평가</li> <li>- 환경친화 골프장 등급 문제</li> <li>- 제주 화재 안전 등급 평가</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li> <li>- 해양 불법 폐기물 정화 활동</li> <li>- 불법 건축물 단속</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 메타버스 기술은 산업 디지털화와 융합되어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지능화 수준 강화에 기여하며, 산업 생산 안전 및 상업 분야 혁신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전망
- ✓ 중국 썬야 크루즈 요트 산업 혁신 연합이 성립, 연합은 기술, 인재, 자본 공유로 전주기 산업 가치 사슬을 강화하며 썬야를 중국 내 기술 혁신 중심지로 육성
- ✓ 다롄시는 1,032대 전기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 비율을 85% 이상 달성하며, 저소음, 긴 주행거리 차량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
- ✓ 선양 AI 센터는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추진,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내 디지털 경제 허브로 부상
- ✓ 산시성은 녹색 수소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추진하며, 수소 산업 전주기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녹색 에너지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중국은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을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24개 성을 포함해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추진
- ✓ 중국 상무부는 가전제품 교체 지원, 녹색 소비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추진
- ✓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에 생태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환경보호 연구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
- ✓ 중국 정부의 경제 회의는 'AI+' 전략 제시, 이를 통해 스마트 제조, 금융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기술 혁신과 국가 산업구조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개정되며 지방 특화 산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포함
- ✓ 중국 소비 산업은 건강 및 맞춤형 제품 수요 증가와 함께 디지털 채널 활용으로 구조 변화를 맞이하며, 기업 혁신과 고소득층 집중 전략으로 성장 지속 예상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6.00%로 유지하며, 시장 개입과 고수익 채권 제공 등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 둔화 대응에 집중
- ✓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며 전기요금 감면과 세제 혜택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 ○ 태국

- ✓ 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 손실 감소를 목표로 BCG 모델을 도입하며 탄소 배출권 확대, 자원 효율화 등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보호 및 경제 성장을 목표로 중국과 협력하며, AI 거버넌스를 통한 다자간 기술 협력과 지역 내 AI 생태계 강화 추진

## ○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10년 내 최고 주택 판매량을 기록하며 추가 규제를 고려 중이고, 민간 주택 공급 확대와 구매자 수요 증대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첫 친환경 전력을 수출하며, 신재생에너지 협정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통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
-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말레이시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며, 강력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안정적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 적자 축소와 구조 전환 추진
- ✓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AI청 설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장과 고소득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기업 협력을 활성화 추진

## ○ 필리핀

- ✓ 필리핀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소유권 제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며, 세제 혜택 연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 강화
- ✓ 세계은행은 필리핀 지방정부의 유아 발달과 보건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며, 성과 기반 지원과 중앙-지방 협력으로 인적자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 필리핀과 한국 간 FTA 체결로 필리핀 수출품 무관세 혜택이 강화되며,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연결성 개선이 기대

## ○ 베트남

- ✓ 베트남은 국제 무기 박람회 통해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해 군사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일본

- ✓ JR九州는 한국 및 일본 고속선 사업에서 철수하며, 침수 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해상운송법 위반 혐의 조사 진행 및 자회사 청산 절차에 착수

- ✓ 이시카와현 가가시는 드론 산업 육성으로 경제 기반을 다각화하며 AI 개발과 인재 양성 거점 마련, 디지털 건강 특구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
- ✓ 이바라키대학과 NEXCO중일본은 고속도로 CO2 회수 기술을 실증 연구하며, 저에너지 고효율 방식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에 따라 AI 기반 검출 기술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며 배터리 관련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
- ✓ 오오노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희소 금속 회수를 통해 환경 보호와 글로벌 자원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
- ✓ 토야마현은 노후 공업용수 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가동 중단 없는 교체 공법을 도입하며, 기업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강화
- ✓ 미야기현은 AI 기술로 공업용수 관로 노후화 진단 및 교체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효율적 예산 운용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관리를 지속 추진
- ✓ 야마나시현은 인도와의 그린수소 기술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며 대기오염 해결과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계획
- ✓ 아나부키 그룹은 태양광 전력 공급 사업으로 CO2 배출을 감축하며, 유휴부지 활용과 사업 모델 혁신으로 지역 환경 및 경제적 기여 확대
- ✓ 도쿄대와 이와테현은 인재 육성과 재해 복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학술 연구를 실용화에 중
- ✓ 니가타현 관광협회는 숙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숙박 업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그린 AI는 CO2 감축 지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감축 전략 수립을 돕고, 경제적 효과를 시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친환경우수골프장 인증 첫 공모에서 기준 미달로 인증 불발 농약 사용 저감 노력 필요</li> <li>· 평가 기준 조정 및 실질 성과 중심 평가 강화. 농약과 비료 사용 저감 정책 재검토 계획</li> </ul> <p><b>-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급 재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 10억 투입으로 지역화폐 포인트 적립 재개. 연말연시 소비 활성화 기대</li> <li>· 탐나는전 최다 이용 고객 시상과 경품 이벤트 진행.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li> </ul>
	평가	<p><b>- 도로 이용자 만족도 평가 상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도로 만족도 76점 기록. 평화로와 일주도로 가장 인상 깊은 도로로 선정</li> <li>· 교통 안전성, 쾌적성 등에서 높은 점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 해소 필요 지적</li> </ul> <p><b>- 도내 카지노 투명성 평가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임기구 직접 검사 제도 도입 후 투명성 확보. 2024년 검사 건수 674대</li> <li>· 출장비 절감 및 검사 효율성 강화. 카지노 운영 국제 경쟁력 상승</li> </ul> <p><b>- 상수도 누수 문제 평가와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정밀 분석 도입. 제주 누수율 41%로 전국 평균보다 4배 높아</li> <li>· 국비 918억 확보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추진. 도민 편의성 증대 기대</li> </ul>
	빈집	<p><b>- 빈집 활용 주거 복지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리모델링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 미관 개선 효과</li> <li>· 청년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활용 방안 모색</li> </ul> <p><b>-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li> <li>· 빈집 활용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보 시스템 운영</li> </ul> <p><b>- 농촌 빈집 재활용 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지역 빈집 정비 및 관광 숙소로 재활용. 경제 가치 창출</li> <li>·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li> </ul>
	건설	<p><b>- 서귀포 의료원 영양병원 건설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부지 협소 문제로 추가 토지 확보 검토. 국비 50% 확보 필요</li> <li>· 영양병동과 치매병동 건설 계획 포함. 의료 인프라 확대 목표</li> </ul> <p><b>- 스마트팜 건설로 농업 혁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기금으로 스마트팜 설비 투자. 레드향 등 고품질 감귤 재배 지원</li> <li>· 차광막과 관수 설비 투자 확대. 농가 생산성 및 기후 적응력 강화</li> </ul> <p><b>- 도로 교통 인프라 건설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정보안내기(BIT) 확충으로 교통 편의성 증대.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li> <li>· 1100도로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안전 조치 마련. 관광객 교통안전 대책</li> </ul>
	성과	<p><b>- 자유무역협정 과수사업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사업 평가 1등급 달성으로 최대 국비 확보. 재해 예방 및 고품질 감귤원 투자</li> <li>· 농업 재해 예방 시설 확대. 912억 원 투입해 15개 세부사업 추진</li> </ul> <p><b>- 제주 치매안심약국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안심약국 100개소 확대 지정.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li> <li>· 약국 종사자 교육 이수 및 치매 예방 캠페인 시행. 지역 치매 안전망 구축.</li> </ul> <p><b>- 탐나는전 지역화폐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10% 포인트 적립 재개.</li> <li>· 연말 소비 활성화 이벤트 진행. 도민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지원.</li> </ul>

- 145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관광객, 여행, 비중, 일자리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 관광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크루즈 방문객 80만 명 전망. 자동 입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 절차 시간 단축</li> <li>· 제주항과 강정항에 38대 설치 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연계 소비 촉진 기대</li> </ul> </li> <li>- 관광객 만족도 향상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 미담 사례 선정.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강조</li> <li>· 관광 약자를 위한 친절 서비스 확대.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효과</li> </ul> </li> <li>- 성수기 관광 요금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렌터카 및 전세버스 요금 성수기 1.5배 상승. 숙박업 요금도 1.3배 증가</li> <li>· 외식업과 골프장 요금 안정적이나 도외민 요금은 도민 대비 1.4배 높음</li> </ul> </li> </ul>
경제·관광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티브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여행. 자연, 로맨스 등 다양한 테마 제공</li> <li>· 지역별 추천 여행지와 QR코드 활용. 제주관광공사의 새로운 고객층 공략 전략</li> </ul> </li> <li>-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특화된 콘텐츠 필요. 해양레저와 생태환경 중심</li> <li>· 강원도와 차별화 어려움 지적. 비용 대비 가치 높은 제주만의 콘텐츠 강조</li> </ul> </li> <li>- 제주 관광경기 회복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기와 관심도에 따라 관광경기 영향. 환율 등 외부 요인 민감도 낮음</li> <li>· 관광경기 침체 극복 위한 홍보 전략 강화. 여행 비용 부담 완화 필요</li> </ul>
경제·관광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초고령사회 진입 비중 증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65세 이상 인구 비중 18.92%. 내년 초고령사회 예상</li> <li>·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분포 차이. 서귀포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li> </ul> </li> <li>- <b>관광업 종사자 비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업, 음식업 종사자 비중 높음. 도내 사업체 20% 차지</li> <li>· 영세 자영업자 비율 과다. 관광업 중심 경제 구조 취약성 지적</li> </ul> </li> <li>- <b>청년층 인구 비중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39세 청년 인구 27%로 감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li> <li>· 중장년층과 노년층 인구 증가. 지역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li> </ul> </li> </ul>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아 수 10년간 39.5% 감소.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li> <li>· 사망자 수 출생아 초과로 자연 감소 지속. 장기적 인구 감소 우려</li> </ul> </li> <li>- <b>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제주 인구 13.7% 증가. 경제 성장률은 3%로 전국 평균 상회</li> <li>· 인구 증가가 지역 총생산 증가로 이어짐. 관광업 중심 경제 구조 여전</li> </ul> </li> <li>- <b>지역 간 인구 불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인구 집중 현상 지속. 서귀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동시 진행</li> <li>· 지역 간 균형 발전 위한 정책 필요. 공공 인프라 개선 강조</li> </ul> </li> </ul>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업 일자리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음식업 폐업률 20% 이상. 관광업 의존 산업 구조 문제</li> <li>·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취약 업종 타격.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 필요</li> </ul> </li> <li>- <b>청년층 일자리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근로 비율 하락. 평균 소득 전국 평균보다 낮음</li> <li>· 자영업 의존에서 벗어난 고용 환경 조성 필요. IT 및 첨단산업 유치 중요</li> </ul> </li> <li>- <b>사회적경제 일자리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 신규 고용 21명 창출.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지원</li> <li>·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필요. 지역 자원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li> </ul> </li> </ul>

- 233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도로, 범죄, 재심, 등급, 불법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b>도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차 금지 구간 확대 지정.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 강화</li> <li>· 렌터카 대상 단속 강화 및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 개선</li> </ul> </li> <li>- 겨울철 도로 설해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설 장비 및 염화칼슘 추가 배치. 산간도로 안전 점검 실시</li> <li>· 대중교통 이용 홍보 캠페인 강화. 산간 지역 도로 폐쇄 대비 체계 마련</li> </ul> </li> <li>- 1100도로 CCTV 도입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정차 단속 효율성 강화 요구. 불법 주정차 감소 예상</li> <li>· 교통사고 예방 및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방안 검토</li> </ul> </li> </ul>
<p><b>지역·사회</b></p>	<p><b>범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랜딩카지노 횡령 사건 수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5억 원 자금 횡령 사건 공범 검거. 재판 진행 중</li> <li>· 도피 중이던 주범 UAE에서 체포. 국제 공조 수사 강화</li> </ul> </li> <li>- 음주운전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단속 1.5% 증가. 음주 사고 27% 감소</li> <li>·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및 홍보 활동</li> </ul> </li> <li>-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비, 학자금 지원. 2500만 원 배정</li> <li>·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한 지속 지원. 민관 협력 강화</li> </ul> </li> </ul>

지역·사회	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 관련 재심 첫 무죄 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 결과 무죄. 74년 만의 판결</li> <li>· 재심 과정에서 유족의 지속적인 법적 노력. 사법 정의 회복</li> </ul> </li> <li>- 광주지법 4·3 희생자 사건 재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은 희생자 무죄 선고</li> <li>· 유족 청구 재심 활성화. 추가 사례 발굴 및 지원 강조</li> </ul> </li> <li>- 4·3 특별재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재판 희생자 직권 재심 2530건 진행 중. 정의 실현 목표</li> <li>· 재심 청구 확대 및 법률적 지원 필요성 대두</li> </ul> </li> </ul>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분야 1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감귤사업 1등급 선정. 국비 912억 원 확보</li> <li>·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재해 예방 시설 확충</li> </ul> </li> <li>- 환경친화 골프장 등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골프장 친환경 인증 미달. 농약 사용 감축 필요</li> <li>· 친환경 기준 강화 및 골프장 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li> </ul> </li> <li>- 제주 화재 안전 등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후 화재 피해 감소</li> <li>· 아파트 화재 진압 성공 사례로 안전성 평가 상승</li> </ul> </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단속 30건 적발</li> <li>· 주차장 시설 확대 및 홍보 활동 필요성 대두</li> </ul> </li> <li>- 해양 불법 폐기물 정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 수거.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li> <li>· 연안 지역 순찰 강화 및 정화 캠페인 진행</li> </ul> </li> <li>- 불법 건축물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 및 산림 지역 불법 건축물 단속. 20건 적발</li> <li>· 관련 법규 홍보 및 적발 건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타버스 기술이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산업 디지털화가 지속되며 메타버스 기술(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이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융합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지능화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li> <li>- 보고서는 메타버스가 상업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 사용자는 가상 세계에서 제품 설계에 참여하고 맞춤형 제작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의류 맞춤 제작에 3D 스캔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li> <li>- 또한, 메타버스의 도입으로 산업 생산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해질 것으로 전망.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아 크루즈 요트 산업 혁신 연합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삼아에서 크루즈 요트 산업 혁신 연합이 출범. 이 연합은 기술 혁신과 협력을 통해 크루즈와 요트의 전주기 및 산업 체인을 발전시키고 삼아를 기술 혁신 및 시범 기지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짐</li> <li>- 삼아는 최근 몇 년간 크루즈와 요트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 올해 1분기 삼아의 국제 크루즈 승객 처리량이 전국 상위 3위에 올랐으며, 현재 등록된 요트 수는 1,400대를 초과</li> <li>- 연합은 기술, 인재, 자본 공유를 통해 산업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중국 표준을 기반으로 한 크루즈 요트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련, 신규 전기버스 1,032대 도입으로 친환경 교통 전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련은 올해 말까지 1,032대의 신규 순수 전기버스를 도입하며, 10년 이상 된 모든 화석연료 차량을 교체할 예정. 이는 국내</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최대 규모의 친환경 대중교통 차량 교체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됨
- 신규 도입된 전기버스는 최신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여 저소음, 고효율, 긴 주행거리 등 다양한 기술적 우위를 제공. 배터리 충전 시간은 2시간 이내, 주행거리는 250km 이상을 달성
  - 이번 교체로 대련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비율이 85%를 초과하며, 전기버스를 포함한 녹색 에너지 차량 비율은 100%에 도달할 전망

### ○ 선양 AI 센터 개소로 디지털 산업 기준 제시

- 선양 AI 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소하며 지역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해당 센터는 디지털 경제 전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전국의 주요 AI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
- AI 센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업그레이드를 지원. 이를 통해 선양의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개소식에서는 다수의 AI 기업과 정부 간 협력 계약이 체결됨.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AI 기술과 관련 인프라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 산시, 녹색 수소 기술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산시성이 녹색 수소 생산 기술을 혁신하며 중국 내 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로 부상. 풍부한 수소 자원과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산시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는 수소 경제의 잠재력과 기술 개발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새로운 녹색 수소 생산 장비가 공개됨. 해당 장비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산시는 향후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응용까지 포함하는 전

중국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주기 산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 이를 통해 글로벌 녹색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 중국, 외국인 대상 경유 비자 면제 정책 대폭 완화

- 중국 정부가 외국인 여행자들을 위한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확대. 기존 72시간 및 144시간 체류 기간은 240시간(10일)로 연장되며, 적용되는 출입국 구역도 24개 성으로 확장
- 신규 정책은 외국인 여행객이 다양한 지역을 횡단하며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주요 관광지와 문화적 명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 특히 신규 추가된 산시, 안후이, 하이난 등 지역은 독특한 역사적 및 자연적 특색을 제공
- 정책 변경은 중국의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여주며, 외국인 관광객과의 문화 교류를 증대시키는 한편,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중국 상무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 발표

- 중국 상무부는 소비 촉진 및 민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가전제품 교체 지원, 융합형 소비 촉진 활동, 소비 기반 개선 등이 포함
- 2024년에도 서비스 소비, 디지털 소비, 녹색 소비 등 다양한 신흥 소비 유형을 육성하고, '은발 경제' 및 '빙설 경제'와 같은 특화된 시장도 확대할 계획
- 중국 정부는 소비 기반을 강화하며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과 소비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일 전망

### ○ 중국 생태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전국 전역으로 확대

- 중국 생태환경부는 생태 품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 완료. 이를 통해 생태학적 데이터 수집, 문제 탐지, 환경 보호 연구 등 전반적인 생태 감시 역량이 강화될 예정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 새롭게 포함된 116개의 종합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산림, 초지, 도시 등 다양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 특히 87개 스테이션은 주요 생태 보호 구역에 위치
- 생태환경부는 앞으로도 네트워크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태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실행력을 높일 계획

#### ○ 중앙 경제 회의, 'AI+ 미래 산업' 전략 강조

- 중국 중앙 경제 회의에서 'AI+'의 심화된 기술 융합과 응용을 통해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산업 구조의 현대화를 도모하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
- 전문가들은 'AI+'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스마트 제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기술 개발과 응용 확산이 핵심 과제로 언급됨
- 미래 산업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으로서, 중국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수정안 공개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 수정안을 발표. 목록은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경제, 바이오 의약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함
- 새로운 목록은 지방별로 특화된 산업 지원을 통해 외국인의 지역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며,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같은 혜택도 포함
- 이 정책은 중국의 고도 개방 및 외자 유치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됨. 목록 개정은 외국인 투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중국 내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중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중국 소비 산업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 시장은 기업 전략과 변혁 기회를 맞이할 것. 해외 진출, 고소득층 집중, 제품 혁신, 소비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언급됨</li> <li>- 2024년 상반기부터 해외 수익이 증가하며,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짐. 또한, 개인 만족과 건강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li> <li>- 기업들은 혁신적인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전망</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인도네시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루피아 안정화 위해 기준금리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6.00%로 동결하고 익일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각각 5.25%와 6.75%로 유지하며 안정성 강화에 집중</li> <li>-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루피아 안정성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중앙은행 총재는 루피아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신중히 조정할 계획</li> <li>- 중앙은행은 시장 개입 확대, 고수익 채권 제공,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루피아 안정화를 추진하며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 둔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li> </ul> </li> <li>○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2%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사치품에서 프리미엄 식품, 국제학교, 고급 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li> <li>- 정부는 40조 루피아 규모의 지원책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소득세 면제 등의 방식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및 전기차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전기차 공장 설립 기업에 관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지원에 나섬</li> </ul> <p>○ 태국, 대기오염으로 연간 4,000억 바트 손실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방콕은 연평균 약 6~7개월 동안 높은 PM2.5 농도를 기록하며 연간 약 1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li> <li>- 바이오-순환-녹색경제(BCG) 모델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자원 효율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 전략을 도입</li> <li>- 오염 저감을 위해 나무 보존, 탄소 배출권 확대,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을 도모</li> </ul>
	<p>○ 캄보디아, 중국과 AI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는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와 위험 완화를 강조</li> <li>- AI 거버넌스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li> <li>- 글로벌 AI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AI 기여율을 높여 GDP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li> </ul>
싱가포르	<p>○ 싱가포르, 10년 내 최고 주택 판매량 기록 및 규제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의 11월 주택 판매량이 2,557건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리 하락과 대규모 프로젝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li> <li>-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고려 중이며,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li> <li>- 민간 주택 부지 공급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수요 증가로 다시 상승세를 탈지 주목</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친환경 전력 첫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50메가와트 규모의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시작하며, 아세안 전력망 통합에 기여</li> <li>- 전력 공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말레이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지원</li> <li>- 이번 협력은 지역 내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등급 BBB+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말레이시아의 장기 외화 발행 기본 등급을 BBB+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 전망을 발표</li> <li>-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강력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치적 안정성 등이 등급 유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li> <li>-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정건전화 및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고속런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디지털 생태계 강화로 고소득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청(NAIO)을 설립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li> <li>- 디지털 문해력을 사회 전반에서 향상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li> <li>- AI 가치와 윤리 정립을 강조하며, 말레이시아 특성을 반영한 AI 개발과 교육을 통해 미래 경제를 준비</li> </ul> </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위한 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매력도 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며, 외국인 소유권 제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도입으로 투자 유치 강화</li> <li>- 법인세율 인하,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등 새로운 법안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기업 회복 및 제조업 전력 비용 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은행, 필리핀 지방정부의 인적자본 개발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은행은 필리핀 지방정부가 보건, 영양, 유아기 발달 지원 등 인적자본 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li> <li>- 유아기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보육시설 활용 저조가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li> <li>- 인력 확대, 성과 기반 보조금, 중앙-지방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필리핀의 인적자본 개발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한국과 FTA 체결 및 인프라 사업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목표로 승인되었으며, 필리핀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이 강화</li> <li>- 주요 인프라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국가 연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li> <li>- 플라리델 우회도로와 팡길 베이 교량의 완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동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국제 무기 박람회로 방위산업 육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국제 무기 박람회를 개최하며, 자국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함</li> <li>- 국내외 방산업체들이 드론, 방공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현지 생산 계약 및 국제 협력 기회를 모색</li> <li>- 주요 국가와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며, 베트남의 군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R九州, 한일 고속선 사업 철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R九州는 부산과 하카타를 연결하는 고속선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3개월 이상 침수 문제를 은폐하고 운항했던 사실이 드러난 후의 조치로 밝혀짐</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침수 방지를 위한 선체 보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자회사 JR九州고속선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
- 운항 중단으로 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며, 해상운송법 위반 혐의로 관계 기관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임

#### ○ 이시카와현 가가시, 드론 산업 육성으로 관광 의존 탈피

- 이시카와현 가가시는 드론 및 AI 산업을 육성하며 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기술자 회의 및 대규모 컨소시엄을 설립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드론 소프트웨어 'ArduPilot' 회의를 일본에서 처음 개최하며 국제적인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AI 개발 및 인재 육성 거점을 마련
- 관광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디지털 건강 특구'로 지정된 점을 활용, 기업 유치와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임

#### ○ 이바라키대학과 NEXCO중일본, 고속도로 CO2 회수 실증 연구

- 이바라키대학은 NEXCO중일본과 협력하여 고속도로 터널 내 CO2 회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며, 실험을 통해 저에너지 고효율 회수 방식을 모색
- 터널 내 환기 시스템과 CO2 농도가 높은 환경을 활용한 '습도 스윙법'으로 CO2를 회수하고, 이를 메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
- 회수된 CO2는 에너지 재활용 외에도 지중 매설 등의 처리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며, 실증 실험을 통해 연간 0.5톤의 CO2 회수를 목표로 설정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 배터리 화재 문제 증가, AI 기술로 대책 추진 중

- 일본 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사고가 증가하며 2023년에는 도쿄에서만 30건이 발생, 지방 자치단체는 수거 및 검출 시스템 도입 등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
- 무사시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배터리 및 소형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배터리를 검출하는 AI 기술도 도입
- 주민들에게 배터리 분리 배출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며,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제조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재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

### ○ 오오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합작 사업 추진

- 오오노 개발은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사업에 진출, 코발트와 리튬 등 희소 금속 추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 일본 내 수거된 배터리를 '블랙매스'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금속을 회수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재활용 사업 확대를 통해 일본 내 자원 문제 해결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글로벌 자원 순환 네트워크에도 참여할 계획

### ○ 토야마현, 공업용수 노후화 대책으로 공장 가동 중단 방지

- 토야마현은 공업용수 관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 없는 공법'을 도입, 공장 가동을 유지하며 관로 개보수를 진행
- 기존 관로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후 관로 교체 작업 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관로 교체 시 소요 시간과 비용 증가라는 도전 과제가 있지만, 조기 계획과 실행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일본**

- **미야기현, AI로 공업용수 관로 노후화 진단 및 교체 우선 순위 설정**
  - 미야기현은 AI 기술을 활용해 관로의 노후화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고 있음
  - 관로의 재질, 연식, 누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해 비용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예산 부담을 최소화 추진
  - 이러한 노력은 공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야마나시현 지사, 인도 방문하여 그린수소 기술 협력 논의**
  - 야마나시현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와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현의 그린수소 기술 도입을 제안할 계획
  -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해당 주와 협력하여,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설정
  - 야마나시현은 인도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와 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재생에너지 협력 네트워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나부키 그룹, 태양광 전력 공급 사업 본격화**
  - 아나부키 그룹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활용해 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
  - 첫 프로젝트로 골프장 유희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연간 약 1,180톤의 CO2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태양광 에너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도쿄대, 이와테현과 협력 협정 체결**
  - 도쿄대와 이와테현은 재해 복구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인재 육성과 학술 연구의 사회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과거 오쓰치초 연구소 설립과 동일본 대지진 복구 지원 협정을 통해 쌓아온 협력 관계를 발전시킴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b>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번 협정을 통해 지역 과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li> </ul>
	<p>○ <b>니가타현 관광협회, 숙박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가타현 관광협회는 숙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별 숙박 패턴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li> <li>- 숙박 시설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 분석을 통해 사업자들이 투자 및 고객 유치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숙박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li> </ul>
	<p>○ <b>그린 AI, 기업의 탈탄소화 지원 시스템 전국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그린 AI는 기업의 CO2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독자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약 20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채택</li> <li>- CO2 배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축 전략을 제공하며, 경제적 효과와 투자 우선순위를 시각화하여 제시함</li> <li>- 2025년까지 500개 이상 거점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음</li> </ul>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